

나는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2000년도에 주님을 만나 가족학자로서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1993년 봄 대학원에서 가족학 공부를 시작할 때, 향후 한국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는 가족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 당시에는 가족학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가족문제를 해결해 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었다. 미국 가족관계학회(NCFER)에 따르면, 가족학의 목적은 가족 관련 지식의 발전을 발전시키고, 입증하며, 활용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 현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과학적인 방법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유학 온 후, 여성과 가족에 큰 관심을 갖고 가족학과 관련 사회과학연구 공부를 진념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시간과 소망, 학문연구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다음 두 가지였다.

주님께서 가족학자인 나에게 주신 꿈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이고 해체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이런 문제와 가족 개개인을 품고 기도하게 하였던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가정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족해체는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예방과 치료가 절실하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건강한 가족을 일러 나가는 데 도움 되는 방법 및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무엇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족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구별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거는 명백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다수 젊은이들에게 용납되고 있다. 이 죄가 개인과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너무나 파괴인테도 말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동거가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곳에서 이뤄진 많은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거했던 커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후 이후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혼전 동거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또한 동거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폭력 당할 가능성도 현저히 높았다. 미국의 연구결과를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짐작할 수는 있다. 이러한 동거남녀관계의 특성과 패턴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건강한 남편관계가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등도 계속 연구되고 알려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분적인 문제 파편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NCFER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미국 가족관계학회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 가족학자들은 부부관계와 남성의 가정참여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아동양육 참여율이 높게



그 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학자의 모습을 그려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스스로에게 던졌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어떤 세계관으로 가족을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
- 2) 가족학의 어느 영역을 연구할 것인가?
- 3)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 4)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가족학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5) 내가 가진 가족학 지식과 통찰력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서서히 보여 주셨다. 특히 미국 내 한인가정 가족들의 아픔을 느끼게 해 주셨다. 이민 1세대들이 겪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서러움과 좌절, 인종차별로 인한 어려움, 한인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겪는 소외감과 외로움, 이민 1세 부모와 미국에서 자란 2세 자녀들 간 문화 차이와 세대 갈등, 부부간의 갈등, 폭력 등. 한국 가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기중심적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에 서다

주인공 현순의 어머니는 다른 자식을 놔두고, 오직 현순에게만 값비싼 '밍크코토'를 물려줬다. 고령의 어머니가 입던 옷이라 중년에게 그리 잘 어울리진 않는다. 하지만 투박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과 이에 대한 의식이 상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거기다 한겨울 우유배달을 할 때 그만큼 따뜻한 건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팔아버린 결혼에 돈이 필요했던 현순은 끝내 밍크코토를 팔아 요긴하게 사용한다. '밍크코토'는 자식을 돌보는데 헌신적인 어머니의 대물림된 분신과도 같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어제목은 난데없이 기독교 법제가 물씬 풍기는 <Jesus Hospital>이다. 영화 속에서 두 가지 가치가 함께 병행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에서는 밍크코토로 대변되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며 가족 갈등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가족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치가 주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전개되는 까닭에 감독은 'Jesus Hospital'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가족이야기라는 일반적인 내용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서로 맞물리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영화 속에는 신앙적 이해가 깊이 들어 있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표면상으로는 가족과 기독교 신앙 두 요소가 함께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미나 가치를 생산해내는 측면에서는 융합보다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기독교세계관의 바탕에서 영화 속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관찰자 입장으로 기독교가정 내 갈등을 바라보는 듯한 연출 기법을 보인다. 따라서 <밍크코토>를 기독교영화라고 확신하기도,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기독교가정의 흥미로운 사건을 전제시키는 과정에서 신앙에 가까운 쪽으로 영화를 끌어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에 위치해있는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듯싶다.

크리스천 가족 내 두 언어 이야기

신인가, 이상철 감독의 영화 <밍크코토>

화려하지만 무거운, 따뜻하지만 잔인한...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왔다. 비사실론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남성의 아동양육참여 정도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질이 향상될수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기도 훨씬 쉬워지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회복케 하는 핵심적인 통로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교회는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족학의 활용기지가 되어 가정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 학계와 교회의 협력 모델이 나온 바 있다. 남녀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학의 스캇 스텐리 박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현재는 다양한 곳에서 실행되고 있다. 사실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기독교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는데, 교회라는 허브(hub)를 통해 그 효과는 배가되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보다 관심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족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나아가 그들을 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 등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한국 가족은 지금 큰 변화를 겪는 중이다. 가정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해체 위기의 불안정한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규범이나 역할도 변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가족을 하나로 있는 제도나 이념은 너무 약해져서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나는 가족학의 전문가로서 정말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가족의 결속과 긍정적인 변화를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 참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 6



강은혜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린디오인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정학 학사와 석사를 받은 후 도미하여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다문화 가족과 모성을 주제로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분야는 다문화 가족,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질적연구방법론이다.

